

# SM "동방신기 공연확인서 위조"..세 멤버와 '위조' 갈등

입력 2009. 11. 25. 09:44 · 수정 2009. 11. 25. 10:10

동방신기 세 멤버 "심천 공연 사인 위조 된 것"



[세계닷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이 동방신기 멤버 3명이 주장한 '공연 확인서 위조 사인'에 관련해 "거짓 진술"이라면 반박하고 나섰다.

SM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 보도된 동방신기 공연 확인서는 위조된 것이며 A씨의 확인서 역시 날조된 공연 확인서를 짜 맞추기 위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명백한 거짓 진술"이라며 "스케줄에 대해 연예인이 인지하고 있을 시, 간단한 신청 서류는 매니저가 대신해 매니저 재량으로 사인을 하는 사례가 많다. 동방신기 역시 일본,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바쁜 스케줄로, 세 번째 아시아 투어 공연 시 멤버들의 동의 하에 현장 매니저의 재량으로 서명해 서류를 제출한 경우가 있었으며, 이렇게 대리 사인한 경우에도 중국 남경, 북경, 상해 등의 공연을 어떠한 문제제기 없이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4일 보도된 공연 확인서는 원본확인서들과 다른 짜깁기된 위조확인서이며, 실제로 원본 확인서와 제목 및 문구 등이 확연히 다르다. 이 확인서는 임의로 작성한 문서 내용에 2009년 6월 제출한 에스엠 타운 상해 콘서트 관련 서류에 있던 사인을 오려붙여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도된 A씨의 확인서를 보면, 사전 사후에 멤버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것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다. 또한 2009년 3월 심천 공연에 대해 멤버들을 대신해 사인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심천 공연의 계약 자체가 2009년 7월에 성사되어 모든 관련 문서는 그 이후에 작성되었으므로 A씨의 확인서 또한 그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거짓 문서이다. 또한 심천 공연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 재판부 앞에서 김재중 군이 명확히 공연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SM은 "결론적으로, 3인 측이 공개한 동방신기 공연 확인서는 짜깁기하여 위조된 것이며, A씨의 확인서 역시 악의적으로 당사를 비방하기 위해 거짓으로 작성됐거나, 누군가와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짜맞추기 위하여 작성된 확인서"라며 "당사는 금번 건에 대하여 배후 인물들이 누구인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해당 당사자에 대해서는 당사에 대한 사문서위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동방신기 세 멤버인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의 측은은 한 매체를 통해 "SM측이 11월 21일 열릴 예정이던 중국 심천 콘서트에 3인이 자신들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면서 갑자기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공연과 관련된 확인서에 있는 3인의 사인은 SM이 임의로 한 것"이라며 "당시 이 확인서에 사인한 A씨가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의 지시로 서명을 대신한 사실을 자필 확인서를 통해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문서와 여기에 실린 사인과 멤버 3인의 실제 사인도 함께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공연에 참석하겠다는 멤버 다섯 명의 사인이 담겨있다.

세명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도 이날 "심천 공연 출연 계약서 사인은 위조된 것이 맞다"면서 "SM 측은 다섯 멤버가 다 본인이 사인했다고 하지만 세 멤버의 사인은 본인들이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 유명준 기자 neocross@segye.com 팀블로그 <http://comm.blog.segye.com>

[\[Segye.com 인기뉴스\] ◆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를 챙겨라 ◆ 사재혁, 205kg 짜리 金바벨 '번쩍' ◆ 지자체 호화청사 '원천봉쇄' ◆ 수전 보일 데뷔 앨범, 첫날 15만장 팔려 ◆ SM "동방신기 공연 확인서 위조"...세 멤버와 '위조' 갈등 ◆ "故김다울, 정상에 오른 후 느끼는 괴리감에 자살"](#)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짜로 연극·뮤지컬보기](#)] [[일상탈출구! 네티즌광장!](#)] < 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